

협업·합병 통해 오디오시장 진출... 음원사 '귀르가즘' 선사

멜론 빅히트뮤직·SM과 컬래버
연령층 확대 '뽀로로' 운영

지니뮤직 밀리의서재 지분 인수
영상콘텐츠 제작 TV서비스 계획

플로 스폰라디오·윌라와 파트너십
3년간 음악 콘텐츠에 2000억 투자



음원사들이 속속 오디오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있다. 협업을 통해 독자 콘텐츠를 확대하는 회사도 있고 전문사 인수합병을 통해 서비스 강화에 나서는 회사도 있다. 음원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오디오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분주한 모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KT의 그룹사 지니뮤직이 전자책 그룹 '밀리의서재'를 인수했다. 앞서 멜론은 지난해 6월부터 자체 오디오 콘텐츠 '멜론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플로도 오디오 북 서비스 '윌라'와 오디오 라이브 플랫폼인 '스폰'과 협업하며 오디오 시장에 진출해있다.

◆멜론, 연예기획사와 컬래버 강화한다

멜론의 오디오 플랫폼 멜론스테이션은 공개 후 1년간 누적 스트리밍 4000만 회를 돌파하며 멜론만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멜론의 오디오 시장 진출법은 연예기획사와의 '컬래버'다. 멜론 스테이션에서는 현재 빅히트뮤직 전용 프로그램 'BIGHIT MUSIC RECORD', SM 전용 프로그램 'SMing'을 진행하고 있다. 양대 대형 기획사의 인기 연예인들이 나오는 오디오 콘텐츠를 통해서 고정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용자의 연령층 확대를 위해 다양한 컬래버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 이용자를 사로잡기 위해서 DJ 뽀로로가 인기 동요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뽀로로의 '뽀로로를 높여요'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 '바리톤 정경의 브라보 클래식', DJ 뽀디 박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나누는 영화 이야기 '영화& 박선영입니다', 정기고의 'SOULBY SEL', '이달의 루키'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통해 오디오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지니뮤직, '밀리의서재' 인수 후 '오디오북' 시장 진출

지니뮤직은 최근 464억원을 투자해 오디오북 전문사 '밀리의서재'의 지분 38.6%를 인수했다.

지니뮤직이 밀리의서재를 인수한 이유는 오디오 시장 진출이다. 다만 지니뮤직은 단순 오디오가 아닌 '오디오북'을 기반으로 오디오 드라마, 오디오 영상 콘텐츠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니뮤직은 현재 밀리의서재를 통해 서비스되는 도서들을 오디오 드라마, 영상 콘텐츠 등 2차 저작물로 확장 시킨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니뮤직의 인공지능(AI) 기술과 밀리의서재가 보유한 오디오 콘텐츠의 시너지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당장 지니뮤직은 밀리의서재를 통해 IP를 제공받아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작된 영상 콘텐츠는 올레 tv, sezn, SkyTV 등을 통해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지니뮤직 조훈 대표는 밀리의서재를 인수하며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창의적인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하고 커넥티드 영역까지 서비스를 넓혀 청각 점유율을 높이고 지니뮤직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플로, 전문사들과 협업으로 오디오 콘텐츠 확대

SKT 드림어스컴퍼니의 음악 플랫폼 자회사 '플로'는 외부 플랫폼과의 컬래버 오리지널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며 시장에 진출해있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선별한 플레이리스트 공개하는 등 이용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플로는 오디오 라이브 플랫폼 '스폰라디오',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윌라'와 최근 잇따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음악 및 오디오 콘텐츠에 향후 3년간 2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체 오디오 콘텐츠 제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래퍼 '낙살'이

DJ로 참여하는 '낙살과 아이들'을 공개했고, 지난 8월에는 가수 '루시드폴'이 진행하는 '루시드폴의 사운드 제주'를 론칭했다.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등 인기 팟캐스트 서비스도 시작하고, '듣똑라'와 협업한 'K팝으로 읽는 MZ 유니버스' 등 컬래버 콘텐츠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다.

최소정 드림어스컴퍼니 전략그룹장은 지난 실적발표에서 "드림어스컴퍼니는 지난 3년간 음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음악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콘텐츠 산업 내 더 공격적인 투자와 과감한 협력을 통해 다음 단계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준혁 기자 junhyuk@metroseoul.co.kr



비거니즘 확대... 식품업계, 채식시장 정조준

투썸 '대체육 샌드위치' 판매 확대
버섯·콩단백으로 돼지고기 맛 구현

신세계푸드 브랜드 '베리미트' 론칭
노브랜드 버거 '노치킨 너겟' 인기

매일유업 '어메이징 오트' 2종 선보임
웅진식품 쌀음료 '아침햇살 미유'



신세계푸드-Better meat(위) /신세계푸드 투썸플레이스의 대체육 샌드위치 /투썸플레이스

식품업계가 비건(vegan·채식주의) 식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건강한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친환경, 동물 보호를 위해 '비거니즘(Veganism)'에 동참하는 트렌드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한국채식협회에 따르면 채식주의자는 2008년 15만명에 불과했지만, 10년만에 10배 가량 증가한 150만명에 달한다. 비건 시장이 성장하면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먹거리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는 베이커리 및 식물성 대체육 샌드위치 판매 매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먼저 베이커리 판매 매장을 기존 19개에서 약 260개로 늘렸다. 이와 함께 환경 및 대체 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은 MZ세대를 겨냥해 식물성 대체육 옴니미트 샐러드랩 판매를 전국 매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버섯, 콩단백으로 돼지고기 맛을 구현한 식물성 대체육을 활용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신세계푸드가 대체육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어 주목을 받았다. 신세계푸드는 독자기술을 통해 만든 대체육 브랜드 '베리미트(Better meat)'의 론칭과 함께 돼지고기 대체육 햄

콜드컷(슬라이스 햄)을 선보였다.

신세계푸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식품 기업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체육 시장에 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6년부터 대체육에 대한 연구개발을 해왔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국내 대체육 시장 규모는 약 200억원 수준이지만 성장 가능성은 어느 분야보다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육은 2030년 전 세계 육류 시장의 30%, 2040년에는 60% 이상을 차지하며 기존 육류 시장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리미트의 콜드컷은 부드러운 이탈리아 정통 햄 '볼로냐', 다양한 향신료가 어우러진 독일 정통 햄 '싱켄', 고소한 맛의 이탈리아 정통 햄 '모르타델라' 등 3종으로 개발됐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베리미트 대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볼로냐' 콜드컷을 넣은 '플렌트 햄&루

콜라 샌드위치'를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 판매중이다.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가 선보인 '노치킨 너겟'도 소비자 반응이 뜨겁다.

노치킨 너겟은 영국 대체육 브랜드 퀴의 마이크로프로틴을 활용해 만든 너겟이다. 미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인 마이크로프로틴은 조직구성이 실처럼 가느다란 형태를 띠고 있어 닭 가슴살과 비슷하고, 씹었을 때 유사한 식감을 줘 유럽에서는 닭고기 대체육의 주성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신세계푸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을 더해 시중에 판매하는 치킨 너겟과 유사한 맛을 구현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체육의 주 소비층이 종교나 건강 등의 이유로 채식하는 소비자로 한정됐지만, 최근 들어 동물복지나 환경보호 등 가치 소비 트렌드의 확산에 따라 대체육을 '착한 단백질'로 인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인기 이유를 설명했다.

식물성음료 시장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미 잘알려진 두유 외에도 비건 유제품이 등장하고 있는 것.

매일유업은 식물성음료 '어메이징 오트' 2종을 선보였다. 어메이징 오트는 통귀리를 곱질해 그대로 갈아 만든 식물성음료로 오리지널과 언스위트 두 가지 맛으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웅진식품은 100% 식물성 쌀음료 '아침햇살 미유'를 출시했다. 쌀 본연의 영양을 가득 담았으며, 깔끔한 맛과 고소한 풍미로 누구나 부담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다. 한국비건인증원에서 원료뿐 아니라 제조 공정까지 꼼꼼하게 따져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유당 불내증이 있는 소비자들도 편하게 마실 수 있다. /신원진 기자 tree6834@



후안 루시아노 ADM 회장(왼쪽)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한 ADM 본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화학

LG화학, 100% 바이오 플라스틱 만든다

美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와 맞손
2025년까지 PLA·LA공장 건설 계획

LG화학이 바이오 플라스틱 상업화를 위해서 미국의 곡물 가공 기업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DM)와 손잡고 합작공장을 설립한다.

LG화학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한 ADM 본사에서 ADM CEO 후안 루시아노 회장, LG화학 CEO 신학철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A(Lactic Acid) 및 PLA(Poly Lactic Acid)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주요조건합의서(H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내년 1분기(1~3월)에 본 계약 체결을 목표로 2025년까지 미국 현지에 연산 7만5000톤 규모의 PLA 공장 및 이를 위한 LA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이 원재료부터 제품까지 통합 생산이 가능한 PLA 공장을 짓는 것은 LG화학이 최초다.

PLA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글루코스(포도당)를 발효·정제해 가공한 LA를 원료로 만드는 대표적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다. 100% 바이오 원료로 생산돼 주로 식품포장 용기, 식기류 등에

사용된다. 일정 조건에서 미생물 등에 의해 수개월 내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다.

ADM은 전세계 200여국에서 농작물 조달시설을 운영하는 글로벌 곡물 가공 기업이다. 바이오케미칼(Biochemical)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원료인 '글루코스' 생산능력과 이를 원료로 한 발효 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합작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LG화학은 수직계열화 기반의 다양한 고부가 제품 개발에 재생 가능한 바이오 원료를 접목시킬 수 있다. 상업적 규모의 고순도 젖산(Lactic Acid) 생산능력을 확보해 PLA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LG화학은 PLA 생산을 기반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을 본격 공략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가능 전략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폐플라스틱 등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생분해성수지 상업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향후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확장 가능한 바이오 소재 공동 연구개발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준혁 기자